



민선 8기 후반기 제주시·서귀포시장 취임

“어려운 민생에 ‘희망’ 새겨 넣겠다”

제34대 김완근 제주시장 “제주형 통합돌봄 기본으로 견고한 보편복지 체계 구축”



김완근 제주시장.

1일 민선 8기 후반기 제주시 행정시장으로 취임한 김완근 시장은 “제주시의 새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더 높은 역량의 도약, 더 많은 시민과의 접점, 더 빠른 관점의 변화로 50만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34대 제주시장 취임식에는 노인인과 여성,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농수축산업인, 제주4·3 유족, 해녀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완근 시장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인구 감소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역동경계도시, 안전·복지도시, 시민자치도시, 혁신성장도시, 문화관광도시, 탄소중립도시, 균형발전도시 등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적확하고 신속한 재정의 투입으로 시민들의

삶터를 풍요롭게 하고, 상권 활성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 1차 산업 활력화를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에 ‘극복의 희망’을 새겨 넣겠다”고 했다. 또한 “제주형 통합돌봄을 기본으로 견고한 보편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권한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역동경계도시, 안전·복지도시, 시민자치도시, 혁신성장도시, 문화관광도시, 탄소중립도시, 균형발전도시 등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적확하고 신속한 재정의 투입으로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로 서귀포 미래 열겠다”

제25대 오순문 서귀포시장 “교육청과 협업 교육력 향상 3개 축 문화·관광 명소 조성”



오순문 서귀포시장.

1일 민선 8기 후반기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 취임한 오순문 시장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란 비전 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서귀포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귀포시청 1층사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제25대 서귀포시장 취임식에는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했고 김광수 교육감, 위성곤 국회의원, 김일환 제주대 총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축하사 이하였다.

오순문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유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서귀포시 업그레이드 전략이 시급하다”며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력 향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문화·관광 명소 조성, 제주대 서귀포 글로벌 캠퍼스 유치, 1차 산업 분야 중점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보육과 교육을 중시하는 시정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의 정례 협의

체를 운영하고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유유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수련 시설 운영, 원도심 살리기 IB학교 전환, 제주대 캠퍼스 이전 특별 TF 구성 계획을 제시했다.

‘문화 중심 서귀포시’를 위한 3개 축 중심의 문화 명소 구상도 내놴.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이종섭로, 동홍동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일주동로 북쪽 거리가 그곳으로 “서귀포 중심 지역들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는 이들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성산포에서 모슬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노력 다할 것”

진명기 신임 제주도 행정부지사 공식 업무 돌입

제주 출신 진명기 신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1일 제주도에 청에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제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민선 8기 제주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신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

일자로 임용됐다. 별도 취임행사 없이 국립제주국립원과 제주4·3평화공원 참배, 재난 대비 현장방문 등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진 신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에 월을 출신으로, 제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과 재난복구정책관, 민방위심의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사회재난실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행정부지사는 도지사의 제



진명기 행정부지사가 1일 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진명기 신임 행정부지사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인사 발령됐다.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민원실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시, 출생 등 4종 신고 가능

제주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가 많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서 4종에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예시 화면으로 연결돼 직원의 도움 없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기타].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플라워. City Flower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746-0014, H-P 010-3693-5563. Address: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 농장 제주시 용당동 721번지

문인칼럼에서

“탄소중립, 논의가 아닌 행동할 때”

지나해 지구는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웠다. 산업혁명후 인류가 급속한 문명의 발전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이나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바뀔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양영식 제주도의회의원

지난 5월 오영훈 도정은 2035년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가정의 난방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대형 운송 수

현재 삶의 방식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 하는건 환상

단, 선박 등 지역사회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충당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반도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결코 쉽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을 선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담대한 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 일상생활속에서 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식해야 하고, 낭비를 줄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기차로 여행을 다니는 식의 변화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실천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듯이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에 보상을 준다면,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주민들의 '의무'만을 강조하기보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주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배출 줄임표 자동차를 억제하면서 친환경 교통이동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태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 집단자살이나, 집단행동이나의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의 불편한 삶이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생활 속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현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

아 할 때다. 기후 우울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크고 화려한 꿈을 추구했던 우리는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기후위기를 큰 짐을 지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2024. 7. 2.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태수